

공개용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3-3호)

2023. 9. 21.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년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금액, 물량 등)을 1,000 으로 표시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3-13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3-3호

조 사 건 명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덩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원심)

신 청 인 주식회사 유니온

서울시 중구 소공로 94 OCI빌딩 13층

대표이사 이진영, 이우선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박진

대리인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원

피 신 청 인 <이집트>

1. Royal El Minya Cement Co.(이하 “로얄시멘트”) 및 그 관계사¹⁾

7 Mostafa Refaat St, Sheraton Buildings, Nozha, Cairo Egypt

2. 그 밖의 공급자

조 사 대 상 물 품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HS 코드 : 2523.21.0000

의 결 일 2023. 9. 21.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등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다.
2.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따라 피신청인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이집트>

- 로얄시멘트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2.23%
- 그 밖의 공급자 : 72.23%

이 유

주식회사 유니온(이하 “신청인”)이 2023.3.2. 신청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조사개시 : 2023.5.1.)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신청인,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제3.1조²⁾와 관세법 제63조제1항³⁾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주문과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⁴⁾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개시하며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1) 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이하 “알바트로스”) : 249, 28th October St, Limassol, Cyprus

2)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이하 생략)”

4) 관세법 제61조제5항 :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

I. 배경

신청인은 2023.3.2.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2023.5.1.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신청인 1개사이며,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실은 국내 수입자인 (주)로얄시멘트코리아와 수요자들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이집트 로얄시멘트와 그 관계사인 알바트로스를 조사 대상공급자로 선정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3항⁵⁾에서는,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3-6호(2023.5.1.)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이며, 관세품목분류(HSK)는 2523.21.0000이다⁶⁾.

조사범위는 주 화학성분으로 산화칼슘(CaO), 이산화규소(SiO_2) 및 알루미나(Al_2O_3)를 함유하는 원료인 석회석, 규석 및 납석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하고 소결(燒結)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한 백색분말 상태로, 산화철(Fe_2O_3) 성분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이다.

예비조사보고서⁷⁾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화학적 특성으로 산화철(Fe_2O_3) 함량, 산화마그네슘(MgO) 함량, 삼산화황(SO_3) 함량 등이 있으며, 주요 물리적 특성으로 분말도(Fineness), 응결시간(Settling time), 압축강도(Compressive strength), 백색도

5)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 “무역위원회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 :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무역위원회는 …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6) 관세품목분류번호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7) 예비조사보고서 p.4~6

(Whiteness) 등이 있다.

조사대상물품은 밝은 색이 요구되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주거환경의 연출을 위한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하여 타일시멘트, 인터록킹 블록(보도 블록), 테라조 타일, 노출 콘크리트 및 인조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 폭넓게 사용된다.

조사대상물품은 조사대상공급자의 관계사인 국내 수입상이 수입하여 직접 또는 중간 유통상을 거쳐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 동종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비조사보고서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국내 생산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8) 예비조사보고서 p.7~15

가. 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

1) 신청인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⁹⁾에 의하면, 신청인측은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나 주요 수요자인 2차 제품 생산자들의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수입자 및 수요자측 주장

조사 답변서에서 일부 수요자와 수입자는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물품보다 압축강도와 백색도가 우수하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일부 수요자들은 양측 제품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일부 수요자 및 수입자는 조사대상물품의 압축강도와 백색도가 우수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부 수요자들은 양측 제품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xxx 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및 수입자가 제출한 xxx 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값의 차이가 존재하나 양측 제품 모두 KS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고, 수요자들 대다수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은 상호 대체사용

9) 예비조사보고서 p.7~10

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을 볼 때,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나. 용도

예비조사보고서¹⁰⁾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은 모두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 제조공정

예비조사보고서¹¹⁾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은 석회석을 채광하여 조분쇄한 후 원료와 혼합하여 미분쇄하고, 소성 과정을 거쳐 클링커를 냉각한 후 석고와 혼합하여 최종 분쇄하는 단계를 거치므로 제조공정이 동일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라. 품질 및 소비자 평가

1) 수입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¹²⁾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조사대상물품의 압축강도와 백색도가 국내 생산물품보다 뛰어나 2차 제품 제조 시 백시멘트의 양을 적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조사대상물품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대상물

10) 예비조사보고서 p.11

11) 예비조사보고서 p.12

12) 예비조사보고서 p.12~14

품의 강도와 백색도가 우수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2) 수요자측 주장

수요자들은 조사 답변서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품질, 가격(물류비용 등), 공급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하였으며, 답변서를 제출한 수요자 대부분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이 대체사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일부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을 동시에 구매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수요자들은 품질과 관련하여, 양생 후 강도(압축강도), 양생시간, 백색도, 내구성, 분말도(고른 입자)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변하였다.

3)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측은,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조사 답변서에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이 상호 대체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수요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수요자가 달라 국내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수입자측 주장과 관련하여, 신청인측이 수요자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와 국내산 백시멘트를 동시에 수요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므로

수입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4)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수요자들이 조사 답변서에서 품질과 관련하여 백색도와 압축강도가 높고 응결시간이 느린 제품(작업의 용이성)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는데, XXX 시험연구원 및 XXX 시험연구원이 수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은 XXX가 XXX하고 XXX가 XXX한 반면, XXX는 XXX보다 XXX하기 때문에, 조사대상물품의 압축강도가 뛰어나서 수요자들이 선호한다는 수입자측 주장과는 어긋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대상물품의 품질이 더 좋다고 답한 수요자 중 대부분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은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였고, 실제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수요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마. 종합 검토

따라서, 위원회는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국내생산물품은 조사대상물품과 품명, 정의, 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품질 및 소비자평가, 유통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예비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Ⅲ.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1.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¹³⁾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국내총생산량 비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국내생산자의 조사대상물품 수입 여부, 국내생산자의 당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2.9.3.~ ‘23.3.2.)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이 해당 산업의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에 확인한 결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는 신청인 1개사로 ‘국내생산사업의 전부’에 해당하므로, 조

13) 예비조사보고서 p.16~20

사실은 신청인을 “국내산업”으로 본다고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본건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생산사업의 전부’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국내산업”으로 정한다.

2.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신청서,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보고서¹⁴⁾에 의하면, 신청인,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해관계인 회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14) 예비조사보고서 p.28~31

조사실은 신청인,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가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한 점, 비밀취급요청 자료가 공개 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IV.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예비조사보고서¹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 된 이집트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와 그 관계사인 알바트로스(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¹⁶⁾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조사참여 신청기간¹⁷⁾ 동안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WTO

15) 예비조사보고서 p.32

16) 조사실이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 알바트로스는 조사대상기간('22.1.1.~' 22.12.31.)동안 이집트의 對한국 수출비중 xxx%(xxx톤)를 차지 하고 있는 수출자로 확인되었다.
- 로얄시멘트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對한국 수출물량이 없으나, 이집트의 알려진 대표적인 생산자로, 조사대상 기간 이전('18~ '20년) 이집트의 對한국 수출 비중 xxx%를 차지한 바 있다.
- 수입통관자료에서 알바트로스가 수출한 상표명은 모두 xxx로 확인되었다.
- 지난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조사종결건(의결 제2023-1호, '23.1.12.)에서 로얄시멘트(생산자)와 알바트로스 (수출상)는 관계사로 확인된 바 있다.

17) 조사참여 신청기간 : 2023. 5.1. ~5.22.

반덤핑협정 제6.10.2조¹⁸⁾에 따른 자발적 조사참여를 신청한 공급자는 없었다.

2. 덤핑사실 조사경과

예비조사보고서¹⁹⁾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3.5.3.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조사대상공급자는 기한내 조사참여신청서(2023.5.22.)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서(2023.6.12.)도 제공하지 않아 미대응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의견진술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2023.9.12.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이해관계인회의 개최(2023.9.19.)를 통보하였으나, 참석의사를 밝히지 않았다.²⁰⁾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18) “(전략) 부당하게 당국에 부담이 되고 조사의 적시 종결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은 최초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적시에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자발적인 대응이 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19) 예비조사보고서 p.32~33

20) 조사실은 조사대상공급자에게 e-mail(xxx@xxx) 발송을 통해 예비덤핑률산정 내역 및 이해관계인회의 개최(‘23.9.19.)를 통보하고 참석여부 및 발언요지를 ‘23.9.18.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는 참석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 이집트 >

가.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및 알바트로스(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²¹⁾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에게 2023.5.3.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2023.5.4.~6.12.)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 ²²⁾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대상공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예비판정을 내릴 수 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
이므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1조, 제7조와 관세법

21) 예비조사보고서 p.33~36

22)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 : “(전략)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 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시행령 제64조제1항, 제64조제5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및 신청인의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비교점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의 공식 수입통관자료를 덤핑가격의 산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1조 및 제7조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 명시하고 있는 조사신청서의 자료가 이집트 백시멘트 가격공시 유통사이트(XXX) 등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된 정보임을 확인하고,²³⁾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산정에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정상가격에 대해서 조사신청서상의 이집트 내수시장가격(XXXEGP/톤)을 사용하였는 바, 이는 독립된 출처인 현지 백시멘트 유통사이트(XXX)에서 입수된 15개 도시의 조사대상기간(2022.1.1.~12.31.) 1년 평균 판매가격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정상가격 조정요소로 신청인과 독립된 출처인 한국은행경제통계의 유통상 마진율(16.64%)²⁴⁾을 적용하였으며, 내륙운반 관련 조정요소는 정확한 생산시설

23) 정상가격은 이집트 현지 유통사이트에서 확인된 15개 도시의 조사대상기간(‘22.1~12월) 전체 평균 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조정요소는 신청인과 ‘비관계사’ 포워딩 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사용하였다.

24) 이집트 유통 사이트 가격에는 유통상 마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집트의 유통상 마진에 관한 신뢰성있는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한국은행 경제통계의 ‘21년 매출 총이익률을 유통상 마진율로 적용하였으며, 조사신청시 ‘22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은 공시되어 있지 않아, ‘21년 기업경영분석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 매출총이익률을 사용하였다.

및 판매처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정비교를 위하여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덤핑가격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기간(2022.1.1~12.31.) 동안 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의 평균수입단가(CIF)를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덤핑가격 조정요소에 대하여 신청인과 독립된 비관계사 포워딩업체 (xxx)에게 전적의뢰한 2022.12월²⁵⁾ 해상운임(xxxEGP/톤) 및 핸들링비용(xxxEGP/톤)을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과세가격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기간(2022.1.1~12.31.) 동안 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의 평균수입단가(CIF)를 사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 및 신청인과 독립된 출처인 이집트 현지 유통사이트, 한국은행, 비관계사 포워딩업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 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조정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산출하였으며, 그 차액을 과세 가격으로 나누어 72.23%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실이 WTO

25) 해상운임이 Covid-19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안정세로 접어들어 '22.12월의 전적서 가격을 적용하였음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2 제1조, 제7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제64조제5항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정한 예비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나. 그 밖의 공급자²⁶⁾

예비조사보고서²⁷⁾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인 로얄시멘트 및 그 관계사의 예비덤핑률인 72.23%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로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고 결정한다.

4. 종합 검토

조사실이 조사대상기간(2022.1.1.~12.31.) 중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사실을 조사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5.8조²⁸⁾에서 규정한 최소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72.23%의 예비덤핑률이 산정되어 덤핑방지관세의 대상이 되는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6)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한다.

27) 예비조사보고서 p.36

28) “(전략)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마진은 최소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후략)”

이에 위원회는 위 산정된 덤핑률이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대로 조사대상공급자별 예비덤핑률을 결정한다.

V.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및 제3.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재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²⁹⁾에 기초하여 덤프물품 수입의 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량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덤프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 덤프물품 수입의 효과 : 물량 및 가격 효과

1) 수입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³⁰⁾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덤프물품의 수입가격에 물건을 구매한 수요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물량효과 및 가격효과의 판단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라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영향, 즉 덤프물품 수출자의 관계사인 수입자의 재판매물량과 재판매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측은, WTO 반덤핑협정 제3.2조에서 산업피해 판단 시 ‘수입물량(the volume of dumped import)’이 절대적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63

29) 예비조사보고서 p.38~72

30) 예비조사보고서 p.38~40

조제1항에서도 실질적 피해의 판정에 있어 덤핑수입의 ‘수입물량’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입자의 주장처럼 재판매량 및 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업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은 WTO 반덤핑협정 제3.2조는 가격효과 분석 시 ‘덤핑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 판단 시 국내시장에 덤핑물품이 최초로 도입된 가격 즉 수입단가(CIF)에 관세 및 통관제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수입자측이 근거로 들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판정과 관련하여,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덤핑물품의 가격 및 그것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하여 피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품이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판매시점’의 가격과 판매량을 기준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수입자측 주장은 동법의 규정과 어긋난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의 조사관행 및 판례에서도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 검토 시 국내 재판매 시점이 아닌 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판정하였으므로, 조사실은 본건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평가함에 있어 WTO 반덤핑협정의 동조

항과 관세법 시행령의 동조항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4) 종합검토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평가함에 있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검토 및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가.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1)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예비조사보고서³¹⁾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19년 1,000톤에서 2020년 2,875톤, 2021년 5,247톤, 2022년 9,240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09.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 증가 여부

예비조사보고서³²⁾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19년 xxx%에서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14.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1) 예비조사보고서 p.42

32) 예비조사보고서 p.43

반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19년 xxx%에서 2020년 xxx%로 증가했으나, 2021년 xxx%, 2022년 xxx%로 감소하면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2.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수입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³³⁾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그간 기타국산 물품의 한국내 공급이 불안정하여 기타국산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입자 회사를 설립한 것이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그만큼 감소했으므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정도와 유사하게 기타국산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했으므로 덤핑물량의 상대적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입자측은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은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청인측이 의도적으로 판매를 줄였기 때문이고, 신청인측이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으로 인해 생산을 증가시키기보다 재고를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측은, 백시멘트와 같이 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이 유사하여 대체가능성

33) 예비조사보고서 p.44~46

이 높은 제품의 경우 특정 국가의 제품만을 대체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2020년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5천톤 가량 증가한 반면 기타국산과 국내 동종물품의 공급량은 모두 줄었고, 2022년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1만톤 가량 증가하였으나 기타국산과 국내 동종물품은 각각 xxx톤 이상 크게 감소하였는데, 수입자측 주장과 같이 덤핑물품이 기타국산을 대체한 것이라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덤핑수입 이전인 2018년까지 국내산업 및 기타국산 물품의 판매단가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각각의 물량이 국내수요에 비례하여 비교적 일정하게 증감하였고, 말레이시아 및 중국 등 기타국을 통해 국내수요가 안정적으로 충족되어 왔으나, 2019년 이후로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국내 동종물품 및 기타국산 물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 수입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감하는 등 덤핑수입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국내생산품 판매를 의도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수입자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구체적으로, 백시멘트 생산사업은 장치사업으로 고정비가 상당히 높아서 판매량(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원가가 하락하므로, 제조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는 늘리는 편이 낫고, 판매(생산)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므로 변동비라도 회수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수입자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은 판매량(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수출자 역시 국내산업과 동일하게 원재료 상승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이라는 추가 원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신청인측이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라는 수입자측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다)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본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2019년 1,000톤에서 2022년 9,240톤으로 연평균 109.9% 증가하였으며,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역시 2019년 xxx%에서 2022년 xxx%로 총 14.7%p 증가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검토하였다.

3) 종합 검토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1)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예비조사보고서³⁴⁾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19년 1,000원에서 2020년 952원, 2021년 926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2022년에 1,065원으로 전년 대비 15% 상승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19년 1,000원에서 2020년 998원으로 0.2% 하락했으나, 2021년 1,016원, 2022년 1,152원으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2021년을 제외하면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에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등락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 수입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³⁵⁾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수입품 판매가격 산정 시 통관세비용에 항

34) 예비조사보고서 p.47~48

구에서 수입자 창고까지의 내륙운반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측은, 통관제비용의 사전적 의미에는 ‘통관 이후’ 발생한 내륙운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및 EU 등 무역구제제도 활용도가 높은 주요국 관례 및 조사 매뉴얼에서도 국내산업의 가격과의 비교 기준은 ‘양륙가격(landed value)(인도)’ 및 ‘landed export price(EU)’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가격은 수입품의 CIF 가격에 관세 및 조세를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관제비용에 내륙운임이 포함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사전적 의미 상 통관제비용에는 입항 후 통관 절차에서 발생한 검사 비용, 세관설비사용료 및 항만하역료 등이 포함되는데, 통관 후 발생한 비용은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므로 수입자의 창고까지 운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통관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수입자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35) 예비조사보고서 p.48~49

2) 덩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가) 덩핑물품의 저가판매 여부

예비조사보고서³⁶⁾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덩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덩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대비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국내 동종물품 대비 덩핑물품의 가격차이 역시 2019년 △xxx원, 2020년 △xxx원, 2021년 △xxx원, 2022년 △xxx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덩핑물품이 저가판매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덩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국내 동종물품과 덩핑물품의 가격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덩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에 판매된 것으로 판단한다.

(1) 수입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³⁷⁾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덩핑물품이 저가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

36) 예비조사보고서 p.49~51

37) 예비조사보고서 p.50~51

청인측이 국내시장에서 독점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이 국내 동종물품의 영업이익률이 국내 주요 일반시멘트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일반시멘트와 백시멘트는 동종업계가 아니므로 영업이익률의 비교 대상이 아니며 백시멘트의 동종업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의 독점공급자 관련 주장에 대해, 국내 유일의 생산자라고 해서 국내 백시멘트 시장이 독점시장인 것은 아니며, 수입자측 주장처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나 국내시장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고정비 회수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출하해야만 하는 입장이므로, 신청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여 독점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독점이윤은커녕 전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덤핑수입 이전에도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xxx% 내외에 불과했으며,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일반시멘트 업계에서는 영업이익률이 15%를 넘는 업체도 매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반시멘트와 백시멘트가 동종업계가 아니므로 영업이익률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수입자측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일반시멘트와 백시멘트는 동일한 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요 원재료의 종류, 제조공정 및 제품의 특성 등이 유사하므로 영업이익률 비교 등에 참고할 만한 충분한 지표라고 반박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2019년 xxx%에서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하고 있는 바, 덤핑물품이 저가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측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백시멘트를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수입자의 주장과는 상이하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수입자측이 일반시멘트와 백시멘트는 동종업종이 아니며 백시멘트의 동종업계는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실이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일반시멘트와 백시멘트는 ‘23311 시멘트 제조업’의 하위 분류로 동종업종임이 명확하므로 수입자측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나)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예비조사보고서³⁸⁾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판매가격

38) 예비조사보고서 p.52

은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22년에 전년 대비 15% 상승한 결과 연평균 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020년을 제외하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4.9% 상승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나,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예비조사보고서³⁹⁾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보다 2019년 xxx원, 2020년 xxx원, 2021년 xxx원, 2022년 xxx원 낮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 대비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고,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내수 판매가격 대비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연평균 10.3% 증가하였으나 판매가격은 연평균 4.9%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덤핑물품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검토하였다.

39) 예비조사보고서 p.53~56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고,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실제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실제판매가격과 목표판매가격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률이 제조원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 덤핑물품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판단한다.

(1) 수입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⁴⁰⁾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신청인측이 2021년과 2022년에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급등했음에도 판매가격을 각 1.8%와 13.4%밖에 인상할 수 없어서 가격인상이 억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2021년 7월 일반시멘트 가격이 5.1% 인상되었는데 신청인측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1.8% 인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이 원가 상승률만큼 판매가격도 상승해야 함에도 덤핑물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판매가격 인상폭이 낮았다고 주장하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2022년에 국내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여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판매가격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0) 예비조사보고서 p.54~56

(2)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이 2021년 일반시멘트 가격인상률 5.1%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상에 반영할 경우 2021년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상률은 1.8%가 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상이 억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가격 상승 억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업종의 가격인상률이 아닌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2021년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유연탄 가격 등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5.1% 상승하였으나, 덤핑수입과의 경쟁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전년 대비 1.8% 밖에 인상하지 못했고, 이는 제조원가 상승폭인 5.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이 억제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수입자가 2022년에 국내시장은 수요감소로 인해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측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22년에 수입자는 물류비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재판매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수입자측 주장대로라면 2021년은 판매자 시장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어야 하나, 국내 수요가 증가한 2021년에도 신청인측은 원재료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입자측 주장처럼 2020년 국내수요의 감소에 따라 판매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면, 2020년에 비해 수요가 증가한 2021년에는 덤핑물품의 수입가격도 상승했어야 하나, 덤핑물품의 CIF 가격은 2019년 114달러, 2020년 110달러, 2021년 110달

러, 2022년 112달러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덤핑물품은 국내 수요와 상관없이 덤핑판매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인상 요인은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 인상이고,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으로 인해 신청인측이 판매가격을 충분히 상승시키지 못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수입자측이 국내 동종물품에 대해서 주장할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판매가격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소비가 증가한 2021년도에 전년도보다 덤핑물품 판매가격을 하락시켰고, 국내 소비가 감소한 2022년에는 반대로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수입자의 주장과 덤핑물품의 판매가격 변동 간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2.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량 및 가동률

예비조사보고서⁴¹⁾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연간 xxx톤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19년 1,000톤에서 2020년 995톤, 2021년 951톤, 2022년 860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1) 예비조사보고서 p.57~59

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2019년 xxx%에서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0.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생산량과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1) 수입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⁴²⁾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신청인측의 자가소비가 매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측은, 신청인측의 자가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2차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서 신청인측이 생산하는 2차제품의 수요도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제품생산량 감소와 자가소비 감소량을 비교해봐도 제품생산량 감소분이 훨씬 크므로 전체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덤핑수입이라고 주장하였다.

42) 예비조사보고서 p.58~59

3) 조사실 검토

신청인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총생산량이 xxx톤 감소하였으나 자가소비는 xxx톤 감소하는데 그쳤고, 2022년 총생산량이 xxx톤 감소하였으나 자가소비는 xxx톤 감소하는데 그쳐, 자가소비의 감소가 총생산량의 감소에 훨씬 못 미치므로, 생산량 및 가동률이 감소한 것은 자가소비의 감소보다는 덤핑수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검토하였다.

나. 판매 및 재고

예비조사보고서⁴³⁾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2019년 1,000톤에서 2022년 910톤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19년 1,000톤에서 2020년 986톤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고, 2021년 995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으나, 2022년 901톤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019년 1,000톤에서 2020년 1,756톤으로 전년 대비 75.6% 급증하였으며, 2021년에는 1,568톤, 2022년에는 1,499톤으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총출하량과

43) 예비조사보고서 p.60

내수판매량이 감소하였고, 기말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연평균 109.9%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 시장점유율

예비조사보고서⁴⁴⁾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xxx%에서 2020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 xxx%, 2022년 xxx%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2.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 또한 2019년 xxx%에서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2.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동종물품과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2019년 xxx%에서 2022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14.7%p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한다.

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예비조사보고서⁴⁵⁾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내수 판매가격은 2019년 1,000원에서 2020년 998원으로 0.2% 하락하였으나, 2021년 1,016원, 2022년 1,152원으로, 각 1.8%, 13.4%씩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예비조사보고서 p.61

45) 예비조사보고서 p.61~63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19년 1,000원에서 2020년 1,006원, 2021년 1,057원, 2022년 1,341원으로 각 0.6%, 5.1%, 26.8%씩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노무비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5% 상승했고, 경비는 연평균 5.7% 상승하여, 톤당 제조원가의 연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반면, 제조원가 비중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6.7~38.7%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제조원가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원재료인 유연탄의 톤당 가격은 2019년 1,000원에서 2020년 809원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1,061원으로 31.2% 상승, 2022년 2,062원으로 94.3% 상승하면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7.3% 상승하였고, 또다른 주요 원재료인 Petro coke의 톤당 가격 역시 2019년 1,000원에서 2020년 910원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1,068원으로 17.4% 상승, 2022년 2,314원으로 116.6% 상승하면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0.3% 상승하였고 제조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료비가 연평균 27% 이상 상승(유연탄 27.3%, Petro coke 32.2%)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이 4.9% 상승한 데 그친 것은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대비 xxx~xxx%)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⁴⁶⁾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예비덤핑률은 72.23%로 덤핑마진의 크기가 미소마진(2%) 이상이므로 작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덤핑마진이

46) 예비조사보고서 p.63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마. 이윤

예비조사보고서⁴⁷⁾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19년 1,000백만원에서 2020년 904백만원으로 9.6% 감소하였고, 2021년 358백만원으로 60.4% 급감하여 2022년에는 △733백만원으로 적자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수부문 영업이익률도 2019년 xxx%에서,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13.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의 악화 추세는 앞서 ‘가격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업이 제조원가(판매가격의 xxx~xxx%)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상승 억제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한다.

1) 수입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⁴⁸⁾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소비의 감소로 국내산업 생산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47) 예비조사보고서 p.63~65

48) 예비조사보고서 p.64~65

이 감소 및 적자 전환한 것이지 덤핑수입으로 인해 손익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입자측은 신청인측이 OCI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의도적으로 유연탄을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줄 것을 조사실에 요청하였다.

2)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이 2020년에 국내소비가 감소하여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년에 덤핑물품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저가판매로 인해 원가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적정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설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수입자측 주장에 대해, 수출자 역시 원재료비 상승 제약을 받음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수입자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수입자측의 유연탄 구입처 관련 주장에 대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유연탄을 구매한 내역이 있는 거래처 목록을 조사실에 제출하면서, 신청인과는 관계가 없는 소규모 업체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측은 2018년 8월 OCI로부터 공식 계열분리하였고 현재는 지분이나 임원구성 등에 있어서 독립적인 별개의 기업이라고 주장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수입자측이 국내소비의 감소(연평균 2.5%) 및 원재료비 상승에 따라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소비의 감소와 원재료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증가(연평균 109.9%)한 바, 신청인측의 주장과 같이 원재료비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수입과의 경쟁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상승시키지 못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이 OCI 관계사를 통해 유연탄을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수입자측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실은 추후 본조사 시 현지실사 등을 통해 관계사 여부 및 고가구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다.

바. 투자수익률

예비조사보고서⁴⁹⁾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투자수익률은 2019년 xxx%에서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현금흐름

예비조사보고서⁵⁰⁾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9년 1,000백만원 현금유입에서 2020년 916백만원 현금유입, 2021년 147백만원 현금유입, 2022년

49) 예비조사보고서 p.66

50) 예비조사보고서 p.66

642백만원 현금유출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고용 및 임금

예비조사보고서⁵¹⁾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2019년 1,000명, 2020년 984명, 2021년 1,000명, 2022년 1,016명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1인당 평균임금은 2019년 1,000천원에서 2020년 965천원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 1,081천원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1,051천원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과 1인당 평균임금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덤핑물품의 수입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

1) 수입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⁵²⁾에 의하면, 수입자측은, 국내산업의 고용인원 및 1인당 평균임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정

51) 예비조사보고서 p.67~68

신청인측은, 임금은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노사협상에 의해 매년 약 3~4% 수준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2020년과 2022년에는 손익 악화로 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에는 인력이탈 방지를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실업문제는 사업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덤핑물품의 수입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고용 및 임금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음

52) 예비조사보고서 p.68

적인 영향이 없었다면서, 국내산업의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이 회사 전체의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산업피해가 있다는 신청인측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가 2019년 0.4에서 2022년 5.1로 큰 폭 상승한 데 비해 국내산업의 임금 증가율(연평균 1.6%)은 평균 임금상승률(연평균 3.0%)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임금이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고용인원은 63명 수준으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평균 1인당 임금상승률은 1.6%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자. 생산성, 성장성

예비조사보고서⁵³⁾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량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량 및 총부가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연평균 5.4~18.0%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생산량은 2019년 1,000톤, 2020년 1,011톤, 2021년 951톤, 2022년 847톤으로 조사대상기간

53) 예비조사보고서 p.69~70

중 연평균 5.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부가가치는 2019년 1,000백만원, 2020년 1,264백만원, 2021년 908백만원, 2022년 552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생산성 지표 중 1인당 매출액은 총매출액이 1.5%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임에 따라 연평균 1.0%의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매출액은 2019년 1,000백만원, 2020년 1,001백만원, 2021년 1,009백만원, 2022년 1,030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조사보고서⁵⁴⁾에 의하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매출 부진과 지속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내부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 등 성장성이 저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매출 부진과 지속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내부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차.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예비조사보고서⁵⁵⁾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 내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어, 내부 자본조달능력이 더욱 악화되

54) 예비조사보고서 p.69~70

55) 예비조사보고서 p.70~71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기업 신용등급은 2019년 xxx 등급에서 2020년 xxx인 xxx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2022년 다시 xxx인 xxx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자본조달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조사보고서⁵⁶⁾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설비투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2020년에 3,093 백만원 수준으로 한 차례, 2022년에 2,109백만원 수준으로 한 차례 진행되었는데, 신청인 측에 따르면 2020년에는 xxx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xxx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연구개발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적자 전환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자본조달능력과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카. 종합 검토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은 고용 및 임금 지표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 및 재고, 시장점유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대부분의 지표가 덤핑물품의 수입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56) 예비조사보고서 p.71

으로 판단한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저가판매로 인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국내산업은 시장점유율 축소 및 생산량과 가동률이 감소하고,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현금흐름,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약됨으로써 국내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Ⅵ.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덤핑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물량 및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가격에 미친 효과(물량 및 가격효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등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와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

예비조사보고서⁵⁷⁾에 의하면, 예비조사보고서 “Ⅲ.2.나.1)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연평균 109.9%)하고 시장점유율이 확대(2019년: xxx%→ 2022년: xxx%)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 동종물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판매량이 감소(연평균 △3.4%)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2019년: xxx%→ 2022년: xxx%)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예비조사보고서 “Ⅲ.2.나.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인 영업적자 속에서도 가격 상승이 억제되어 목표판매가격보다 실제판매가격이 약 xxx~xxx%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예비조사보고서 “Ⅲ.2.다. 덤핑물품 수입이 국

57) 예비조사보고서 p.74~76

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산업은 생산량 및 가동률의 하락, 판매량 감소 및 시장점유율 하락과 함께,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영업 손실이 지속되어 현금흐름,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약됨으로써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물품 수입 이외의 영향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예비조사보고서⁵⁸⁾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중인 국가는 없으며, 덤핑물품 외 기타국산 백시멘트 수입물량은 2019년 1,000톤, 2020년 719톤, 2021년 721톤, 2022년 443톤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3.8%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2.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덤핑물품의 판매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보다 대체로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58) 예비조사보고서 p.77~78

나. 국내소비 변화

예비조사보고서⁵⁹⁾에 의하면, 국내소비는 2019년 1,000톤에서 2020년 952톤으로 4.8% 감소하였다가, 2021년 998톤으로 4.8% 증가, 2022년 927톤으로 7.1% 감소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19년 1,000톤에서 2020년 986톤으로 1.4% 감소하였다가, 2021년 995톤으로 0.9% 증가, 2022년 901톤으로 9.4% 감소하여 국내소비의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2019년 1,000톤에서 2020년 2,875톤으로 187.5% 급증하였으며, 2021년 5,247톤으로 82.5% 증가, 2022년 9,240톤으로 76.1% 증가하는 등 국내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증감률이 10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소비가 감소한 시기에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국내소비의 감소량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지속 증가하였는 바, 국내소비 변화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59) 예비조사보고서 p.79

다. 수출실적

예비조사보고서⁶⁰⁾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19년 1,000톤에서 2020년 1,043톤, 2021년 972톤, 2022년 1,490톤으로 연평균 14.2% 증가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출부문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매년 악화되고 있으나, 총출하량 대비 수출량 비중이 매우 낮아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라.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예비조사보고서⁶¹⁾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에서 xxx% 수준으로, 주요 원재료는 유연탄과 Petro Coke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유연탄의 톤당 가격은 2019년 1,000원에서 2020년 809원으로 19.1% 하락했다가, 2021년 1,061원으로 31.2% 상승, 2022년 2,062원으로 94.3% 상승하여 연평균 27.3% 상승하였으며, Petro Coke의 톤당 가격은 2019년 1,000원에서 2020년 910원으로 9% 하락하였으나, 2021년 1,068원으로 17.4% 상승, 2022년 2,314원으로 116.6% 상승하여 연평균 3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0) 예비조사보고서 p.80

61) 예비조사보고서 p.81~82

조사대상기간 동안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판매가격의 xxx6~xxx%로 높은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비가 연평균 약 27~32%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폭이 단위당 재료비 상승폭보다 훨씬 작은 4.9%에 그치고 있어, 조사대상기간 동안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의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수출국 및 국내산업의 백시멘트 생산능력

1) 신청인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⁶²⁾에 의하면, 신청인측은, 이집트 내 백시멘트 생산능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Royal El Minya Cement는 SESCO Cement 소유의 이집트 백시멘트 공장이며, SESCO Cement는 피신청인 외에도 Cleopatra Cement라는 백시멘트 공장을 이집트에 보유하고 있어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생산능력은 두 개 공장의 생산능력을 합산한 값(약 100만 톤)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2) 예비조사보고서 p.82~83

2) 수입자측 주장

수입자측은, 이집트 내 백시멘트 생산능력이 국내산업보다 약 3배 이상이라는 신청인측 주장과 관련하여, 신청인측의 사업보고서에 제출된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234천톤으로 피신청인의 생산능력(XXX톤)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신청인측 답변서에 따르면 정비기간 등을 제외한 최대가동일수를 적용한 국내산업의 백시멘트 생산능력은 XXX톤으로, 신청인측이 생산능력 근거로 제출한 산식을 검토한 결과 생산능력이 XXX톤(백자리에서 반올림)이라는 계산은 정확해 보이며, 본조사 시 현지실사를 통해 실제 정비 일수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이 제출한 SESCO Cement 소개자료(SESCO Cement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Royal El Minya Cement 공장의 백시멘트 생산능력은 550,000톤, Cleopatra Cement 공장의 백시멘트 생산능력은 500,000톤으로 합이 1,050,000톤이며, 조사실이 2023.7.25.에 Royal El Minya Cement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동사의 연간 백시멘트 클링커 생산능력(TPA)은 450,000톤으로 수입자가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생산능력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 요인

예비조사보고서⁶³⁾에 의하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서 열거한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상품 생산성 등 사항은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증빙이 충분히 포함된 주장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종합 검토

조사실은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감소(연평균 $\Delta 3.4\%$)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2019년: $xxx\% \rightarrow$ 2022년: $xxx\%$)하였으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xxx \sim 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덤핑물품의 물량 및 가격 효과에 따라, 국내산업은 고용 및 임금 지표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생산량 및 가동률의 하락, 판매량 감소 및 시장점유율 하락과 함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2019년 $xxx\% \rightarrow$ 2022년 $xxx\%$)하면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이 억제됨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현금흐름, 자본조달 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이 저해되어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63) 예비조사보고서 p.83

한편,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국내소비,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같은 시점에서 덤핑물품의 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VII. 잠정조치 건의

예비조사보고서⁶⁴⁾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 동종 물품에 비해 절대적(연평균 109.9%) 및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상승(14.7%p)하였고,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상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Delta 2.0\text{p}$), 내수판매량이 감소(연평균 $\Delta 3.4\%$)하였고, 특히,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률은 2019년 xxx%에서 2022년 $\Delta \text{xxx}\%$ 로 적자 전환되는 등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64) 예비조사보고서 p.85~87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덤핑물품의 수입 물량이 2019년 1,000톤에서 2022년 9,240톤으로 xxx%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에도 2022년 상반기 대비 수입 물량이 더욱 증가(2022년 상반기 9,741톤 → 2023년 상반기 9,993톤)하는 등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어,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9년 xxx%에서 2022년 △xxx%로 상장 이래 최초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2022년 상반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되어 영업이익률이 △xxx% 수준으로 영업 적자가 악화되는 등 국내 유일의 생산자인 유니온의 경영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바, 조사기간동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 공급자별 예비 덤핑률(72.23%)에 해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3년 09월 21일

위원장	이재민	
상임위원	문동민	
위원	조영진	
위원	이계영	
위원	이종은	
위원	현낙희	
위원	조영재	
위원	강준하	

적 용 법 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및 제32조
-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5조 및 제71조
-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내지 제6조 등

붙 임 자 료

-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 이집트 >

1. 로얄시멘트 및 그 관계사

(1)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 7 Mostafa Refaat St, Sheraton Buildings, Nozha, Cairo, Egypt

(2) 알바트로스(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 249, 28th October St, Limassol, Cyprus